

여수 올 첫 어패류 폐사 어민·수산당국 초긴장

적조 피해 여부 일주일 뒤 확인

황토금지령 해제요구 높아질 듯



지난 4일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 육상 양식장에서 참돔 등 치어 25만마리가 폐 죽음을 당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조 관련 폐사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적조가 남해안과 동해안을 휩쓸며 물고기가 폐죽을 당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도 처음으로 육상 양식장에서 키우던 치어와 치패가 잇따라 집단 폐사해 어민과 수산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와 여수시,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적조 관련성 여부를 조사중이며, 정확한 폐사원인을 확인하기까지는 1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장에서 시료를 채취, 고수온이나 적조 피해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특히 참돔이나 도다리 치어의 경우 여러 수조 중 특정 수조 내 치어만 폐사한 점으로 미뤄 적조에 의한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다. 전북 치패도 수조 20개 중 1곳에서만 폐사가 났고, 이 수조 안에서 일부 살아 있는 치패도 발견돼 폐사 원인이 적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도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황토 살포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적조를 막겠다"

는 방침을 고수하며 황토를 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수산부와 어민들은 황토 살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도는 황토 살포 대신 5일 전해 수 발생기 10대를 긴급 투입, 적조를 방제하고 있다. 전해수 발생기는 표층의 적조를 소멸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적조주의보에 이어 같은 달 22일 적조경보가 발령된 여수해역은 남면 화태도(㎡당 적조 생물 1800~2500개 체)·항구미 (980~2100개체) 해역, 금요도 소유(550~950개체), 돌산읍 계동(250~1500개체) 해역 등지에서 현재 적조가 관찰되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 인구 190만명 붕괴 초읽기

올들어 주민등록 인구 3590명 줄어... 광주 147만명 매년 증가 추세

전남 인구의 190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 감소추세라면 내년에 19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인구 200만명이 붕괴한 이후 딱 10년 만에 10만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반면 광주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년 내에 인구 15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의 주민등록 총인구는 5106만4841명으로 작년 말보다 11만6569명이 증가했다.

작년 말보다 인구가 줄어든 시·도는 서울(2만3316명)을 비롯한 부산(-5490명), 전남(-3590명), 대

구(-2040명), 경북(-1907명), 강원도(-1771명) 등 6곳이다.

작년 말보다 인구가 늘어난 시·도는 경기(8만8254명), 인천(2만970명), 충남(1만891명), 제주(5909명), 대전(5643명), 울산(5509명), 경남(5010명), 세종(4252명), 광주(3141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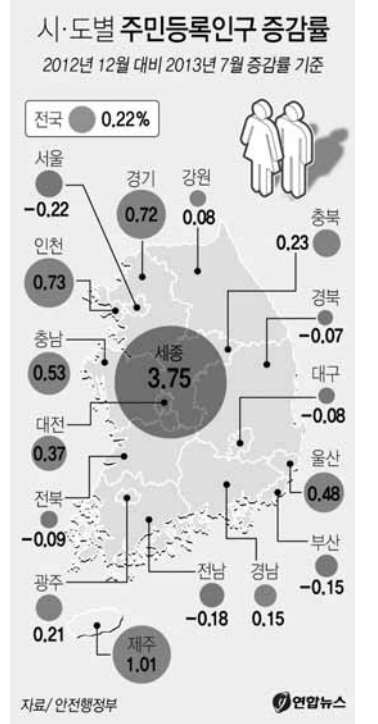
매년 1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줄던 전남은 지난해엔 나주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전년 대비 4721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폭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올 들어 다시 인구 감소현상이 속도를 내면서 지난 달 190만9618명이던 인구가 7개월 만에 190만6028명으로 0.18%(-3590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7월 내에 190만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1986년 11월 1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될 때 280만명이었던 전남 인구는 해마다 적게는 1만명에서 2011년 12월 210만명이 붕괴된데 이어 31개월만인 2004년 7월 200만명까지 붕괴됐다.

한편, 현재 147만2357명인 광주시의 인구는 매년 5000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5년 내에 150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1995년 첫 적조... 누적피해 454억원

751일 발생... 수온 떨어져야 소멸 황토살포 14차례

지난 1995년 이후 전남지역에서 적조로 발생한 피해는 454억원에 달하고, 수온이 떨어져야 한풀 꺾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적조는 지난 1995년 전남에 첫 피해를 안긴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다.

지난 1995년 피해액 216억원, 2003년 176억원, 2002년 30억원, 2007년 5억8000만원 등 대부분 적조 지속 기간이 60일 안팎으로 길어지면 피해가 컸다. 8년간 총 피해액은 어패류 2200여만마리 폐사에 454억원이다.

또 7월 5일(2012년)에서 8월 30일(1998년) 사이에 발생해 가장 늦게까지 기승을 부린 경우는 10월 30일(2006년)까지였고, 평균 42일간 지속했다. 적조가 발생한 일수를 다 합하면 751일로 2년이 넘는다.

전남도는 지난 1997년 이후 적조 소멸의 주된 이유로 '수온 하강'을 들었다. 계절 변화에 따라 바닷물 온도가 떨어지면 적조생물의 코롤라디니움의 활력이 둔해진다는 것이다.

태풍으로 적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1997년 '올리와' 2000년 '사

오마이', 2005년 '나비' 등 5차례나 태풍에 적조가 사라졌다.

특이한 적조 소멸 사례도 있다. 지난 2004년에 적조생물의 종(種)간 경쟁으로 소멸했다. 프로로센트럼(Prochlorocentrum) 식물 플랑크톤이 급격히 증식, 종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코롤라디니움 발생을 억제했다.

최근 박준영 전남지사의 살포 금지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황토는 그동안 14차례 31만여어이 쓰였다. 적조 피해 발생이 없었던 2008~2011년 3년과 1995년 등 단 4차례만 황토살포가 없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해남 대흥사 천불전 보물 지정

제1807호 국가문화재

해남 대흥사 천불전(千佛殿) <사지>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제1807호로 지정됐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천불전은 1813년 중건(重建)된 건물로 대흥사 남원(南原·금당천 남쪽)의 중심건물로서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1821년 풍계 현정 스님이 기록한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등을 통해 건물의 중건과 천불 조성·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건축물이다.

건축적으론 평면 비례, 공포 배치, 상부가구(上部架構) 등에서 천불을 봉안하기 위한 합리적 인 계획수법을 볼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포의 구성과 세부적 조각수법, 빗장(경사진 천장)·우물천장(井字 형태로 널을 댄 천장)의 장식과 구성, 창호 등은 화려하지 만 지나치지 않고 구조 또한 견실하다.

이런 구성과 세부적 수법은 인근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인 미황사 대웅전(1754년), 불갑사 대웅전(1764년), 불화사 대웅전(1808년) 등과 유사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높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문화재청은 "대흥사 천불전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천불 전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18민주평화광장, 잔디광장으로"

광주환경단체 주장

옛 전남도청 앞에 조성하게 될 5·18민주평화광장을 박석 대신 잔디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도청 앞 화물나루 모임 등 시민단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민주평화광장 조성을 위해 실시 설계를 발주했다는 이유로 조성방법 변경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잔디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청 본수대 주변 7485㎡에 이르는 민주광장을 화강석

박석으로 포장할 계획인데 여름철 복사열과 겨울철 빙판으로 주변 생태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상무관 주변의 녹지와 아시아문화전당의 녹지를 단절시켜, 시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광장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시청이 상무지구 신청사로 이전한 후 불과 4년 만에 시청 앞 미관광장의 석조타일을 뜯어내고 89억원이나 들여 평화공원을 만들었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잔디를 조성하면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두환 자녀 소유 부동산 잇단 처분 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씨의 뇌물수수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전씨 차남 재용씨가 지난 6월 '비애셋' 명의의 서울 이태원 고급 빌라 2채를 매매한 데 이

어 다른 형제들도 검찰 조사를 전후 해 소유 부동산 처분을 시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삼남인 재만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 회사 '다나 에스테이트' 측이 현지 소재의 한 고급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도 최근 서울 평창동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주치정 ● 고대 ●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전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080130-공-26%로

2013년 2학기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3. 9. 21(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회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 후 교육감 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사(1급~3급) 자격 취득 기회 부여	·1.2단계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회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 후 교육감 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사(1급~3급) 자격 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WWW.WOMANS.UAC.AC.KR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ANGWON NATIONAL UNIVERSITY
http://www.gnue.ac.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원·투룸, 내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아파트대출
- * 기타대출

신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자영업자 특별보증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본 점 | 공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아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아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아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아간반 :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야간반 :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사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회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감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